



소식지 제33호(2000년 12월)

발행인: 최재용, 편집인: 김종복 발행처: 한국언어정보학회  
130-701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 경희대학교 문리과대학 영어학부내  
전화: 02-961-0892/0211 전송: 02-961-0892  
e-mail: [jongbok@khu.ac.kr](mailto:jongbok@khu.ac.kr), URL: <http://society.kordic.re.kr/~ksli>

㉞ 임시 총회 개최

오는 16일 학회 모임 후 1:00시부터 중앙회관에서 학회의 여러 중요 현안을 토의하기 위한 임시 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선생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㉟ 회장님 말씀

이번 12월 16일 월례 모임은 현 집행부가 주관하는 마지막 학술모임입니다. 이제 내년 3월 새 집행부가 출범하기까지 남은 중요 행사로는, 2월 초의 PACLIC과 2월 말경의 차기 운영위원회가 있고, 또한 2002년 PACLIC의 준비가 있습니다. 특히 1년여 남은 제주도에서의 PACLIC에 대비하여 조직위원회 구성을 차기회장님과 협의 중이고 조만간 발족시킬 예정입니다.

지난 2년간 현 집행부가 주관한 여러 학회 일에 적극 동참과 지원을 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고마움을 표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 학회 일에 헌신적으로 임해 주신 현 집행부 임원 김종복, 홍민표 선생님과, 편집 일을 꼼꼼히 챙겨주신 노용균 선생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회장 최재용 올림

㊱ [언어와 정보] 논문 모집 및 회원 가입 안내

언어와 정보 논문은 수시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투고하실 원고는 자유로운 스타일로 하시며, 아래로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자우편 [ynoling@hanbat.chungnam.ac.kr](mailto:ynoling@hanbat.chungnam.ac.kr), 305-764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220 충남대학교 언어학과 노용균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2000년도 학회 연회비는 정회원 20,000원, 준회원 10,000원이며, 평생회비는 200,000원입니다. 학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평생회비 납부**에 많이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학회와 협력관계가 있는 생성문법학회, 한국언어과학회, 현대문법학회에 등록하신 분들은 정회원 10,000원의 특혜가 있습니다. 연회비는 발표회 모임에서 직접 내시든지 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시면 됩니다. (예금주: 한국언어정보학회(김종복), 계좌번호: 012336-0071907, 경희대 서울우체국)

2000년 회비 납부 현황:

- **평생회원:** 1999년도 평생회원: 최규련(연세대), 최재용(고려대), 이영현(조선대), 김경학(수원대), 윤애선(부산대), 최기선(과학기술원)      2000년도 평생회원: 이영현(조선대), 김종복(경희대), 이남근(조선대), 김경애(한경대), 이민행(연세대), 이예식(경북대), 류병래(충남대), 최현숙(영남대), 이기용(고려대), 윤평현(전남대), 김용범(광운대)
- **정회원:** 강우순(경희대), 김종현(서강대), 곽은주(세종대), 남승호(서울대), 노용균(충남대), 문승철(항공대), 엄재일(홍익대), 유은정(서울대), 윤영은(이화여대), 윤재학(경희대),

이예식(경북대), 이익환(연세대), 장석진(서울대), 정대호(한양대), 정재현(충북대), 채희락(한국외대), 홍민표(명지대), 이혜윤(서울대), 김용범(광운대), 강범모(고려대), 정 찬(동서대), 조세연(호남대), 홍성룡(남서울산업대), 구유선(충남대), 김용환(양산대), 권희상(대전산업대), 이정민(서울대), 이현우(인하대), 송경안(전남대), 최기용(광운대), 임경섭(동신대), 이광호(호남대), 류재근(광주대), 호광수(조선대), 박효명(전남대), 박태규(전남과학대), 김철희(무궁화유치원), 신경구(전남대), 최승권(한국전자통신), 정수영(광주여대), 이종근(목포대), 시정곤(KAIST), 채명희(전남대), 송민영(고려대), 김미숙(충북대), 최병진(목포대), 권철현(고려대), 양동휘(서울대), 한정혜(U.Penn), 박용진(전주대)

- **준회원:** 송현석(서울대), 이진옥(충남대), 위혜경(연세대), 채숙희(서울대), 박병선(고려대), 차준경(고려대), 최종주(조선대), 육청민(충남대), 정미애(혜전대), 이춘숙(고려대), 김대광(한국외대), 유승(연세대), 류석형(인하대), 성윤미(인하대), 채문희(인하대), 홍경하(인하대), 강민아(충남대), 김기형(충남대), 정병균(조선대), 김정오(조선대), 정혜인(조선대), 최석문(서울대), 서민정(부산대), 최동석(인하대), 김진영(경희대), 노승용(서울대), 김향숙(경희대), 이계연(한국외대), 홍훈기(연세대), 최은진(연세대)
- **기관회원:** 조선대학교, 위덕대학교, 충북대학교, 한양대학교(안산학술정보관), 한경대학교, 경북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 초당대학교

㉠ **PACLIC 15:**

제 15차 PACLIC 학술대회가 이번에는 2월 1일-3일까지 City University of Hong Kong에서 개최됩니다. 저희 학회에서는 이번에도 많은 회원들이 참여, 논문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학회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URL: <http://www.rcl.cityu.edu.hk/paclic15> 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PACLIC 16은 2002년 저희 학회 주체로 제주도에서 열릴 계획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구구조문법연구회**

이번 학기 마지막 구구조문법연구회가 지난 12월 9일 충남대학교 문리과 대학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모임을 준비해 주시고 후원해주신 충남대 홍성심, 노용균, 류병래 선생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발표를 해주신 동신대 임경섭 교수님, 경희대 박병수 교수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학기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자료 구입:**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아래와 같이 여러가지 자료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12월 말까지 간사(김진영, TEL: 961-0211, [leri@khu.ac.kr](mailto:leri@khu.ac.kr))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Latex 자동 설치 CD 및 안내서
2. 2000년 한국언어정보학회 학술대회의 논문/특강의 자료집(Proceeding)
3. 구구조문법 자료집
4. ESSLI Course Packages
5. 기타 CSLI 출판 저서 (Malouf, Fox, Barlow 등 기타)
6. 언어학자를 위한 Latex CD 및 안내 책자

㉣ **학회 동정:** 이번호에는 U. Penn에 계시는 한정혜 선생님께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글을 실었습니다.

**펜실바니아 대학교 (University of Pennsylvania)의 인지과학 연구소 (Institute for Research in Cognitive Science)에서 진행중인 한국어 관련 자연언어 처리 프로젝트 소개**

한정혜 (Institute for Research in Cognitive Science University of Pennsylvania)

회원님들께 펜실바니아 대학교 인지과학 연구소에서 현재 진행 중인 한국어 관련 프로젝트들 세 가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1) Korean XTAG, (2) Korean Treebank, 그리고 (3) Korean/English machine translation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Korean XTAG은 Feature Based Lexicalized Tree Adjoining Grammar (LTAG) 이론을 기반으로 한국어 문법을 기술하고 이에 바탕한 구문분석기를 구축하는 프로젝트이다. LTAG Grammar는 기본 어휘와 연결된 유한수의 elementary tree (lexicalized elementary tree)로 구성되어 있고, substitution과 adjunction이라고 불리는 operation을 통해 elementary tree들을 결합하여 문장구조를 형성한다 (Joshi 1985). LTAG Grammar의 가장 큰 장점은 elementary tree가 기본어휘의 모든 통사/의미적인 논항들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LTAG은 언어학뿐만 아니라 parsing, machine translation, information retrieval, generation, summarization 등 각종 자연언어처리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우리는 한국어 TAG grammar 개발을 위하여 'Korean XTAG System'이라고 불리는 문법개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원래 XTAG System은 영어 LTAG grammar 구축을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으로서 part-of-speech tagger, parser, 그리고 문법기술 interface로 구성되어 있다. Korean XTAG System은 기존의 XTAG System을 한국어 문법 개발에 맞게 변형한 것으로서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와 접목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Korean Treebank는 형태소분석과 구문분석 정보를 지닌 on-line corpus이다. 이 corpus의 규모는 6000문장과 48,000 단어이며, 그 내용은 주로 군대 이동, 물량 공급, 정보 추출, 계기 사용법 등을 포함한다. 우리는 되도록이면 어떠한 이론에도 치우치지 않고 현상 묘사 위주로 구문 정보를 입력하고 있다. 편의상 phrase structure 형식을 따라 구문 정보를 입력하고 있는데, 이에 는 각종 word-level node (e.g., NNC, VV, VJ)와 phrase-level node (e.g., NP, VP, ADJP), complementation과 adjunction, 그리고 pro와 trace와 같은 empty category에 대한 정보 등이 있다. 앞으로의 계획은 이 Treebank를 사용하여 통계처리를 기반으로 하는 한국어 구문분석기를 개발하는 것이며, 자동 문법 추출기를 이용하여 (Xia 1999) 한국어 LTAG grammar를 추출하여 내는 것이다.

우리는 또한 현재 CoGenTex, Inc.와 함께 한국어/영어 기계번역기를 개발중이다. 한국어와 영어는 형태소와 구문구조에 있어서 매우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한국어/영어 기계번역을 제대로 하려면 고도의 언어 분석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문제들이 많다. 우리의 기계번역기는 한국어 parsing, transfer, 영어 generation 등 크게 세 단계를 거친다. 먼저 한국어 문장이 구문분석기에 입력되고, 그 결과가 transfer lexicon에 기술된 transfer rule을 이용하여 영어 구문구조로 변형된다. 그 다음에 영어 생성법 (generation rules)을 이용하여 제대로 된 영어 문장을 생성한다. 우리의 기계번역 방법론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transfer rule 기술에 있다. 우리는 단순히 한국어 어휘와 영어 어휘를 연결시키는 rule이나 한국어 구조와 영어 구조를 연결시키는 rule에 그치지 않고 어휘와 그 관련 구조를 함께 연결시키는 rule을 사용한다. 이러한 방법론을 'lexico-structural transfer' (Nasr et. al. 1997; Palmer, Rambow and Nasr 1998) 이라고 하는데, LTAG에서 말하는 lexicalized elementary tree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프로젝트들의 참여자들은 Dr. Aravind Joshi와 Dr. Martha Palmer의 지도하에 저를 포함한 박사후 과정 연구자들과 언어학과와 전산학과 대학원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박철우 (박사후 과정), 고연숙, 한나래, 김면철 (박사과정)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언어처리 연구가 이곳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언어학과와 전산학과 사이에 적극적인 교류와 상호협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http://www.cis.upenn.edu/~xtag/koreantag/>>을 방문하여 주십시오. 여기에는 소개된 프로젝트들과 관련된 각종 연구논문들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 ㊤ 회원소식:

- ◆ 이영현(조선대) 교수님께서 대한언어학회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축하드리며 대한언어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 신입회원: 윤평현(전남대), 양동휘(서울대), 한정혜(U.Penn) 선생님께서 저희 학회 회원으로 가입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 학회 소식: 2001년 2월 6-7일 한국언어학회, 2월 16-17일에는 저희 학회와 협력관계에 있는

현대문법학회의 겨울학술대회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학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표논문초록]

**Topics and (Weak) Quantifier Phrases**  
이 해운 (서울대)

화제의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양하다. 그러나 그 정의에 있어서는 ‘대하여성(aboutness)’나 ‘주어짐성(givenness)’의 개념이 공통적으로 관여하는 것 같다. 이에 따르면, 한정 명사구가 화제로 등장하는 일은 자연스럽다. 반면에 비한정 명사구로 간주될 수 있는 양화구의 경우, 화제와의 관련성은 그 유형에 따라 일반적으로 상이하다고 본다: ‘강 양화구(strong QP)’는 상대적으로 높은 확인가능성으로 인해 화제로 인식될 수 있는 반면, ‘약 양화구(weak QP)’는 그 성격상 화제의 역할을 한다고 보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맥에 따라서는 ‘약 양화구’가 화제로 인식되는 문장들을 영어나 독일어에서 찾아볼 수 있다 (Büring 1996, Jäger 1999).

- (1)(a) There is a whole herd of unicorns all around. [THREE]<sub>T</sub> unicorns are in the GARDEN.
- (b) There is a whole herd of animals all around. [Three UNICORNS]<sub>T</sub> are in the GARDEN.

위 두 예문에서 명시된 화제 악센트에 따라 ‘three unicorns’이 화제 역할을 행한다고 보지만, 주어진 악센트의 상이함에 비례하여 핵심어 unicorns의 담화정보 상태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즉 이는 Diesing (1992) 등에서 주장하고 있는 propositional reading vs. cardinal reading의 차이를 보여준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영어/독일어의 양화표현에 해당할 수 있는 한국어의 분류사구문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구문에 대하여 그간 다양한 논의들이 있어왔지만, 본 발표에서는 (i) 명사+수사+(분류사) 구문과 (ii) 수사+(분류사)+명사 구문의 의미/화용론적 차이는 채완(1983), 유동준(199?) 등을 근거로 하여 위의 (1)에서 보여주는 propositional reading vs. cardinal reading 차이와 관련있음을 논의하고자 한다. 끝으로 이런 양화구의 두 해석을 DRT (Kamp & Reyle 1993)내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복수명사의 기술에서 사용한 Abstraction 기법과 연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Contrastive Topic in Chinese and Korean**  
**-with special reference to *shi***  
Chungmin Lee (SNU)

**1. Introduction<sup>1</sup>**

I claim and demonstrate that the construction *shi*---(*de*), which has been treated as a nominalization construction with *shi* as a copula (Paris 1979) or as a focus marker by Chinese scholars, is emerging basically as a Topic or Contrastive Topic marker. I also consider other possible Contrastive Topic phenomena in Chinese.

**2. *shi* or *shi*---*de* as a Topic Marker**

First, *shi* sets the domain of discourse by its preceding NP, as follows:

- (1) a. dayang **shi** tai ping yang zui da.  
ocean TOP Pacific Ocean biggest  
‘As for the ocean/Of the oceans, the Pacific Ocean is the biggest.’
- c. daeyang **-un** taepyeongyang-i choedae-i-ya  
ocean -TOP Pacific Ocean -NOM greatest-is-DEC  
‘As for oceans, the Pacific Ocean is the greatest.’

Second, *shi*---*de* as a Topic marker shows its predicate as an individual-level predicate, playing the role of ‘describing a profession’, as follows:

- (3) a. nei ge nanren **shi** sha niu de  
that CL man TOP kill cattle COMP  
‘That man is a cattle slaughter.’ ‘That man kills cattle slaughter.’

b. nei ge nanren (zheng zai) sha niu (modified)  
 that CL man PROG kill cattle

‘That man is killing/killed a cow.’ (modified)

Third, an underlying ‘kind’ object appears as a Topic in the *shi*---*de* construction.

(5) jin-shu huo-zi yin-shua **shi** han-guo ren fa ming de  
 metal (printing) type –TOP Koreans invented COMP  
 ‘The metal printing type (is what) Koreans invented.’

(6) kinzoku (no) katsuzi-**wa** kankokujin-ga hatsumei-shita no-da (J)  
 metal of type -TOP Koreans-NOM invent COMP-is  
 ‘The metal printing type is what Koreans invented.’

. Fourth, ‘Generic sentences are Topic constructions’ (Lee 1996). Observe:

(7) rén sheng **shì** you xiàn de. 人生是有限的。  
 life TOP finite ‘Life is finite.’

(9) “I **am** go to high school” (a Korean student learning English)

Fifth, facts in the Shanghai dialect reported by Xu and Liu (1992) decisively support my claim. Consider: (*shi* associated with the preceding Topic even in pronunciation)

(10) wo **shi**, wu xiangxin you bai zhong shiti ge (Shanghai dialect)  
 I TOP not believe there is such situation  
 ‘I don’t believe there is such a situation.’

### 3. *shi* as a Contrastive Topic Marker

The marker *shi* shows its initial utterance as a concessive admission with the preceding nominal individual contrasted with the following one in the ‘but’ sentence.

(11) fan **shi** chi guo le, dan **shi** shuiguo mei you chi guo  
 rice CT eat PER FP but CT fruit not eat PER  
 ‘Rice, I ate but fruit, I didn’t eat.’

Another marker of Contrastive Topic *ne*, often replaceable by *shi*:

ni shi hanguoren ma? 한국인이세요?  
 wo shi, ni **ne**? 네 그래요. 아가씨는요?  
 lian ge yue yiqian 2개월전에 ---  
 xianzai **ne** 현재는 --- xianzai **shi** (OK, same meaning)  
 shiji **ne** 실제로는

Intonational Contrastive Topic:

(문) n à wu gè rén hái zài ma? 那五個人還在嗎?  
 the five CL person remain Q ‘Do the five persons remain?’  
 (답) san ge rén zou le. 三個人走了  
 three CL person leave PERF ‘Three persons left.’  
 (문) ‘How many people left?’  
 (답) san ge rén (zou le). 三 (個人) sanH\*

Contrastive Topic vs. Focus

(문) What did he eat?  
 (F) ta chi le [dou zi]<sup>f</sup>. 他吃了豆子.  
 he eat PERF beans ‘He ate the beans.’  
 (F) kui-nun [khong-UL]<sup>f</sup>.mek-ess-e  
 (CT) ?\*ta chi [dou zi]<sup>CT</sup> le. 他吃豆子了.  
 (문) Did he eat the beans and peanuts?  
 (CT) ta mei you chi [dou zi]<sup>CT</sup>. 他沒有吃豆子. ‘He didn’t eat the beans-CT.’  
 (CT) ta chi [dou zi]<sup>CT</sup> le. 他吃豆子了  
 ‘He ate the beans-CT.’  
 (CT) kui-nun [khong-**un**]<sup>CT</sup>.mek-ess-e  
 (F) a. ??ta chi le [dou zi]<sup>f</sup>. 他吃了豆子. ‘He ate the beans.’  
 b. ??kui-nun khong-ul mek-ess-e (Korean)

#### 4. Contrastive Predicate Topics and Information Strength Scale

A contextually supplied higher predicate in contrast denied (Lee 2001)

(CP) lái shì lái le. 來是來了..

(CP) lái shì lái le, dàn shì měi yǒu shàng tái biǎo yǎn  
come CT come PERF but CT not on the stage perform  
'(He) came-CT, but didn't go on the stage.'  
來是來了, 但是沒有上臺表演.

(CP) kǐ -wa shì ta  
come-TOP did '(He/She) came-CT.'

(Q) a. \*'All[L+H\*LH%] came'  
b. \*motu-NUN o -ass -e (Korean)  
c. \*minna -WA kita (Japanese)  
(a, b, c) 'All-CT came.'

(Q) All cAmE[L+H\*LH%] but no one volunteered.

(Q) dà huà lái shì lái le, dàn shì měi yǒu rén juān qián  
大話來是來了, 但是沒有人捐錢 'All came-CT but no one donated money.'

(Q) suǒ yǒu de rén dōu lái le, dàn shì měi yǒu rén juān qián.  
所有的人都來了, 但是沒有人捐錢.

(Q) aLL[L+H\*LH%] didn't come.

(PQ) ???sha shì sha le, OK with (dàn shì tā sī zhī wǎn hào)  
kill CT kill PERF limbs remain

(PQ) ???cuki-ki -nun hǎe-ss-ta

Extreme predicates behave like universal quantifiers with CT.

(T) xué shēng shì xué shēng (but she stays in the game room all day long).  
student CT student '(She) is a student-CT.'

Inherently negative predicates like 'short' reveal the negative force in CT construction.

(N) tā gē zǐ ài shǎo ài dàn zú qiú tí de hěn hǎo  
he height short CT short but soccer kick-ing very good

CT interacts with polarity.

#### [Selected References]

Lee, Chungmin (2001) Contrastive Predicate Topics and Conventional Scales, *CLS* 36.

Paris, Marie-Claude (1979) *Nominalization in Madarin Chinese*, Universite Paris VII.

Xu, Liejiong and Liu Danqing (1992) *Huati de Jiegou yu Gongneng*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Topic]

#### 특수조사 -만의 분포와 구조적 기능 최재용 (고려대)

한국어 특수조사의 의미를 제대로 기술하기 위해서는 초점의 개념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양인석 (1993)에서 특수조사의 의미 기술에 핵심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자매항'이란 개념은 초점을 전제로한 개념이다. 여기에 더해, 영어나 독일어에서의 '초점사'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참고한다면, 작용역(scope)이란 개념 역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Konig 1991, von Stechow 1991). 본 발표에서는 '배타적' 의미를 띠는 특수조사 -만의 분포적 특성을 분석한다. 특히 -만의 의미해석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주요 의문, 즉 -만의 표면적 분포 특성을 검토한다. 특히 문장내 -만의 표면적 분포와 -만과 연계된 초점/작용역 사이의 연관성을 탐구해 본다.

논의 순서는 우선 초점표지로서의 -만의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 그 다음에는 작용역표지로서의 -만의 가능성을 검토해 본다. 특히 다음과 같은 일련의 문장의 배경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설정하여 -만과 연계된 초점 및 작용역에 대한 화자들의 직관을 포착하는데 활용한다.

미국은 이라크가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만 반대한다.

미국은 이라크가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만 반대한다.  
미국은 이라크가 미사일만 배치하는 것을 반대한다.  
미국은 이라크가 미사일만 배치하는 것만 반대한다.

본 발표에서는 -만을 초점사 표지로만, 또는 작용역 표지로만 규정하기에는 관련 자료가 충분히 포괄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초점핵' 개념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최재용(1996)에서 제기된 -만의 작용역 중의성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초점 구조에 대한 계층적 이해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참고문헌]

- 최재용. 1996. -만의 작용역 중의성. 21:1-2, 673-692.  
Konig, E., 1991. *The Meaning of Focus Particles*, Routledge.  
von Stechow, A., 1991. "Current issues in the theory of focus," A. von Stechow & D. Wunderlich (eds.), *Semantik/Semantics: An International Handbook of Contemporary Research*, Berlin: de Gruyter, 804-825.  
Yang, In-Seok. 1993. *Linguistic Explorations*, Seoul: Hanshin

문법화와 이태리어 접어  
김운용(한국외대)

일반적으로 문법화를 Hopper & Traugott(1993)에 따라서 "주로 어휘적 기능을 하던 것이 문법적인 기능을 하거나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형태의 일부로 되는 것, 또 '덜' 문법적인 기능을 하던 것이 '더'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바뀌는 현상"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태리 접어를 통시적인 관점에서 접어의 출현 시기와 기술적인 분석을 하게 될 것이며 공시적인 관점에서 문법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접어 *ci*와 *ne*를 중심으로 다루겠다. Hopper & Traugott(1993)는 문법화 범주를 내용어(content word) > 문법적 단어(grammatical word) > 접어(clitic) > 굴절접사(inflexional affix)로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Zwicky & Pullum(1983)과 Zwicky(1985)에 의하면 접어는 넓은 의미로 굴절어미의 특성과 독립적인 단어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문법단위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로 기술하고 있다. 이태리어 접어를 Zwicky & Pullum(1983)과 Zwicky(1985)에 따라서 공시적인 관점에서 세분화하고 Hopper & Traugott(1993)의 문법화 범주에 따라서 문법화가 되어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참고 문헌]

- Bruni, F.(1987) *L'italiano: Elementi di storia della lingua e della cultura*, Torino, UTET.  
Hopper, Paul J. & Elizabeth Closs Traugott (1993) *Grammaticaliz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Regula, M. & J. Jerne (1965) *Grammatica Italiana Descrittiva*, M?chen: Franke Verlag Bern.  
Rohlf, G. (1966) *Grammatica storica della lingua litaliana e dei suoi dialetti, I Fonetica*, Turin, Einaudi.  
Rohlf, G. (1968) *Grammatica storica della lingua litaliana e dei suoi dialetti, II Morfologia*, Turin, Einaudi.  
Rohlf, G. (1969) *Grammatica storica della lingua litaliana e dei suoi dialetti, III Sintassi e formazione delle parole*, Turin, Einaudi.  
Zwicky, Arnold and Geoffrey K. Pullum (1983) "Cliticization vs. Inflection: English *n't*," *Language* 59.3.  
Zwicky, Arnold (1985) "Clitics and Particles," *Language* 61.2.

### <2000학년도 2학기 연구 발표 계획>

장소: 대우재단 세미나실 일시: 토요일 9:30-12:30분

| 날짜             | 시간                  | 발표자          | 논문제목                        | 사회           |
|----------------|---------------------|--------------|-----------------------------|--------------|
| 12월 16일<br>(토) | 일반논문<br>9:30-10:10  | 이해운<br>(서울대) | Topic and Quantifier Phrase | 김종복<br>(경희대) |
|                | 일반논문<br>10:10-10:50 | 이정민<br>(서울대) | 중국어의 대조적 화제와 shir           |              |
|                | 휴식(10분)             |              |                             |              |
|                | 일반논문<br>11:00-11:40 | 최재웅<br>(고려대) | 특수조사 -만의 연계초점과<br>작용역       |              |
|                | 일반논문<br>11:40-12:20 | 김운용<br>(외대)  | 문법화와 이태리어 접어                |              |

### <2000년 2학기 구구조문법 연구회 워크샵>

장소: 충남대 문리과 대학토요일 2:30-5:00

| 날짜            | 시간        | 발표자          | 논문제목                | 토론자          |
|---------------|-----------|--------------|---------------------|--------------|
| 12월 9일<br>(토) | 2:30-3:30 | 임경섭<br>(동신대) | Agreement in HPSG   | 김경학<br>(수원대) |
|               | 휴식(10분)   |              |                     |              |
|               | 3:40-4:40 | 박병수<br>(경희대) | Agreement in Korean | 장석진<br>(서울대) |

